

미취업자의 구직행동유형 결정요인 탐색 : 구직활동자, 구직희망자, 구직관망자를 중심으로

이 성 석* · 광 민 정**1)

최근 대졸자와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미취업자가 증가되고 있으며, 둔화되는 경제성장률을 타개하여 나가기 위하여 미취업자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하고 있다. 미취업자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미취업자에 대한 노동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를 할 목적으로 미취업자의 유형을 구직활동자, 구직희망자, 구직관망자로 구분하였고, 이들을 결정짓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규명하였고, 미취업자의 유형별로 평소활동과 생활만족도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한국노동패널 18차년도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고,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선택변수, 미취업자 중 구직활동자, 구직희망자, 구직관망자의 선택변수를 탐색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미취업자의 유형별로 평소활동과 생활만족도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 분산분석을 이용하였다. 미취업자 유형의 선택변수로 성별, 연령대별, 학력, 사회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구직활동자의 경우 현재의 건강상태가 선택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서론

최근 세계적인 불황과 우리나라의 저성장의 지속으로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에 따른 취업자의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취업자이나 아니면 미취업자이나에 따라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산업구조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일컫는 시대를 맞이하여 높은 수준의 지식을 바탕으로 고숙련의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많은 산업현장에서는 저임금의 단순한 기술을 요하는 노동에 대한 수요도 부족하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취업이 이루어지려면, 기업의 경제활동의 활성화로 인하여 일자리가 늘어나는 공급의 측면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15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구직자가 구직을 위한 활동으로 유도되는 수요의 측면과 부합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히 수요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미취업자들이 구직을 위하여 어떤 행동양식을 취하는 지에 따라 구직활동자, 구직희망자, 구직관망자로 구분하였고,

* 서원대학교 경영학과, ** 평택대학교 데이터정보학과: 교신저자 mjkwak@ptu.ac.kr

이들을 선택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김안국(2003)은 청년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청년층의 미취업자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미취업자를 그 원인에 초점을 두고, 실업, 가사·육아, 학업·훈련,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미취업의 원인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복합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남기곤(2009)은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전기의 미취업이 다음 기의 미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연령, 학력, 기혼여부 등과 같은 인구통계적 속성(인적 속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직업훈련경험이나 거주지역의 실업률 그리고 성장단계의 가정환경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성림(2004)은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의 경우 미취업자의 의중임금과 시장임금을 추정하여 비교함으로써 본래적 미취업자와 파생적 미취업자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취업할 의사의 유무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4가지 유형을 구분하고 이러한 유형을 결정짓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다항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성의 인적자본수준, 자녀양육 및 가사부담, 가계경제상태, 이전직장 경험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재민(2012)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미취업자의 비중이 금융위기 이전으로 떨어지지 않는 원인을 인구분포와 미취업으로의 진입과 진출이라는 동태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2009년의 금융위기 이후에 자발적 이직이 미취업자의 증가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강순희·어수봉·최기성(2015)은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미취업자의 직업훈련참가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직업훈련이 수자의 고용성과를 취업효과와 임금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여기서 연령이 적을수록, 교육년수가 증가할수록, 직업경험이 있을수록 직업훈련에 참가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특히 직업훈련의 참가로 인하여 취업가능성이 높아지고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규직이나 임금의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취업자를 구직행동의 측면에서 구직활동자, 구직희망자, 구직관망자로 구분하고 이들을 결정짓는 영향요인을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분석을 통하여 도출하고 이들이 여전히 미취업자의 유형 구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남아있는 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구직관망자를 구직희망자로, 구직희망자를 구직활동자로, 구직활동자가 궁극적으로는 취업이라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18차년도(2016년)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18차년도 자료는 가구자료, 개인자료, 부가조사자료, 작업력자료로 구성되나, 본 연구는 이 중에서 개인자료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18차 조사에서 개인설문대상은 18차년도 조사대상 가구에 소속된 만15

세 이상의 개인으로 총 14013명이다. 그 중에서 취업자와 미취업자에 모두 조사된 설문을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미취업자에 대한 세가지 유형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18차년도 한국노동패널자료에서 개인응답자는 14,013명이며, 이중 취업자 7,970명(56.9%)과 미취업자 6,043명(43.1%)을 대상으로 하였다.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문항 5번에서 “... 지난 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를 구해본적이 있습니까?”란 질문에 “(1) 구해보았다”라는 응답자는 163명이었으며, 이들이 구직활동자의 일부이고, 문항 5번에서 “(2) 구해보지 않았다”라는 응답자 5,880명을 대상으로 문항 6번에서 “지난 1개월 이내에 한번이라도 수입을 목적으로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를 구해본적이 있습니까?”란 질문에 “(1) 구해보았다”라는 응답자는 33명이었다. 이 두 경우의 응답자를 합치면 196명(1.4%)이며 이들을 ‘구직활동자’로 명명하였다. 한편, 문항 6번에서 “(2) 구해보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5,847명을 대상으로 다시 문항 7번에서 “지난주에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를 원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1) 원하였다”라는 응답자는 101명(0.7%)이며, 이들을 ‘구직희망자’로 명명하였다. 한편 문항 7번에서 “(2) 원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5,746명은 ‘구직관망자’로 명명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노동패널조사의 설문지에 따른 응답구조와 현황

구분	1계	2계	3계	4계	5계
전체 14013 (100.0)	[취업자] 7970 (56.9)	취업자 7970 (56.9)	취업자 7970 (56.9)	취업자 7970 (56.9)	취업자 7970 (56.9)
	[미취업자] 6043(43.1)* *오른쪽 칸의 ()안은 6043을 기준으로한 백분비임	구직활동 유 196 (3.2)	구직활동 유 196 (3.2) <구직활동자>	취업가능 184 (3.0)	일자리요청 유 18 (.3)
				취업불가능 12 (.2)	일자리요청 무 166 (2.7)
		구직활동 무 5847 (96.8)	직장희망 101 (1.7) <구직희망자>	취업가능 75 (1.3)	년내 구직경험 유 18 (.3)
				취업불가능 26 (.4)	년내 구직경험 무 56 (.9)
		직장비희망 5746 (95.1) <구직관망자>	직장비희망 5746 (95.1)	직장비희망 5746 (95.1)	결측치 1
					년내 구직경험 유 3 (.1)
					년내 구직경험 무 23 (.4)
					직장비희망 5746 (95.1)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18차년도 한국노동패널데이터에서 제공되는 개인별 자료의 분석은 SPSS를 이용하여 교차표분석,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독립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서는 미취업자를 다시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즉, 4주 내에 구직을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한 “구직활동자”와 구직을 희망만 할 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구직희망자”, 그리고 구직활동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구직을 희망하지도 않는 “구직관망자”로 구분하였다.

<표 2>는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세가지 유형에 따라 성별, 연령대별, 학력별, 부 또는 모의 생존 여부, 사회경제적지위, 사회경제적지위의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분할표이다.

성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여자(52.1%)가 남자(47.9%) 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자는 취업자(59.2%), 구직활동자(52.0%), 구직희망자(53.5%)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 반면에 여자는 구직관망자(68.1%)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15~29세(16.4%), 30~39세(17.8%), 40~49세(19.3%), 50~59세(17.3%)가 비슷한 백분비를 보이고 있으나 60세 이상(29.1%)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취업자의 경우, 15~29세(8.6%)가 이례적으로 매우 적게 나타났고, 60세 이상(19.6%)도 적게 나타났다. 구직활동자의 경우, 15~29세(37.2%)로 전체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60세 이상(6.6%)은 매우 적게 나타났으며, 이는 청년층이 활발한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나 노년층은 구직활동이 부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직희망자의 경우, 15~29세(25.7%)와 40~49세(25.7%)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청년층과 조기퇴직한 40대가 구직을 바라지만 실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직관망자의 경우, 15~29세(26.4%)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29세의 청년층에서 구직활동자, 구직희망자, 구직관망자가 많지만, 취업자가 적다는 것은 최근 취업이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32.9%), 중졸이하(27.5%), 대졸(22.8%), 전문대졸(13.5%), 대학원이하(3.3%)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경우, 중졸이하(20.5)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대졸(16.1%), 대졸(24.8%), 대학원이상(4.8%), 고졸(33.8%)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전문대 또는 대학진학률이 높아진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구직활동자의 경우, 전문대졸(25.5%), 대졸(29.1%)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구직희망자의 경우 대졸(33.7%)이 그리고 구직관망자의 경우 중졸이하(37.8%)가 특히 많이 나타났으므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부모생존은 부 또는 모의 생존을 묻는 것이며, 예(63.5%)가 아니오(36.5%) 보다 1.7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활동자의 경우 예(80.6%)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구직희망자의 경우 예(73.3%), 그리고 취업자의 경우 예(69.8%)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나, 구직관망자의 경우 예(54.1%)는 상당히 적게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살펴보면, 중-하(49.5%), 하-상(26.2%), 중-상(15.6%), 하-하(7.3%), 상-하(1.2%), 상-상(.2%)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직활동자는 하-상(34.7%), 구직희망자는 하-상(33.0%)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구직관망자는 하-하(10.3%)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개인적인 노력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에 대한 기대에 대하여 대체로 그렇다(56.4%), 별로 그렇지 않다(33.2%)가 많이 나타난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6.7%), 매우 그렇다(1.9%)의 양극단의 의견이나 잘 모르겠다(1.8%)와 같은 모호한 의견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구직활동자의 경우 대체로 그렇다(48.5%)는 낮게 나타난 반면, 별로 그렇지 않다(43.4%)는 높게 나타났고, 구직희망자의 경우 역시 대체로 그렇다(44.0%)는 낮게 나타난 반면, 별로 그렇지 않다(38.0%)는 구직활동자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구직관망자의 경우, 대체로 그렇다(58.7%), 별로 그렇지 않다(29.9%)로 나타났다는 점은 심층적인 분석을 요하는 특이할 만한 현상이다.

<표 3>은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세가지 유형에 따라 최근 직업훈련경험, 최근 자격증취득유무,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준 등에 대한 분할표이다.

직업훈련에 대하여 받아본 경험이 있다(4.1%), 현재 받고 있다(.2%)가 받아본 적이 없다(95.7%)에 비하여 매우 적게 나타났다. 취업자의 경우 받아본 경험이 있다(6.8%)가 약간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취업자는 흔히 직장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취득한 자격증에 대하여 없다(99.3%)가 거의 대부분이며, 구직활동자의 경우 2.0%, 구직희망자의 경우 3.0%이고, 취업자의 경우 .8%, 구직관망자의 경우 .5%로 미미한 편이다.

좋은 일자리의 기준에 대하여 안정적인 일자리(51.0%)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자신의 적성·취향에 맞는 일자리(15.6%), 장래 발전가능성이 높은 일자리(12.9%),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자리(9.0%), 자율성이 보장되는 일자리(1.7%)의 순서로 나타났다.

구직활동자의 경우 장래 발전가능성이 높은 일자리(23.0%)가 상당히 많게 나타났고, 구직희망자의 경우 자신의 적성·취향에 맞는 일자리(23.0%)가 많이 나타났으며, 구직관망자의 경우 안정적인 일자리(48.3%)가, 그리고 취업자의 경우 안정적인 일자리(53.1%)가 약간 많이 나타난 편이다.

<표 4>는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세가지 유형에 따라 현재 건강상태, 1년 전과 비교한 건강상태, 보통사람과 대비한 건강상태에 대한 평균의 차이를 분석하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다중비교의 결과를 요약한 표이다.

현재 건강상태에 대해서 전체(2.56)는 건강한 편으로 나타났고, 구직활동자(2.26)가 취업자(2.43)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구직희망자(2.64)나 구직관망자(2.74)가 더욱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한 건강상태에 대해서 전체(3.07)는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고, 구직희망자(3.10)나 구직관망자(3.16)는 취업자(3.00)나 구직활동자(3.01)보다 약간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사람과 비교한 건강상태에 대해서 구직활동자(2.47)와 취업자(2.57)는 구직희망자(2.87)나 구직관망자(2.84)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미취업자 유형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변수 분포

		취업자	미취업자			계
			구직활동자	구직희망자	구직관망자	
성 별	남	4719 (59.2)	102 (52.0)	54 (53.5)	1831 (31.9)	6706 (47.9)
	여	3251 (40.8)	94 (48.0)	47 (46.5)	3915 (68.1)	7307 (52.1)
	계	7970 (100.0)	196 (100.0)	101 (100.0)	5689 (100.0)	14013 (100.0)
연 령 대 별	15 ~ 29세	688 (8.6)	73 (37.2)	26 (25.7)	1517 (26.4)	2304 (16.4)
	30 ~ 39세	1822 (22.9)	38 (19.4)	13 (12.9)	621 (10.8)	2494 (17.8)
	40 ~ 49세	2093 (26.3)	35 (17.9)	26 (25.7)	551 (9.6)	2705 (19.3)
	50 ~ 59세	1803 (22.6)	37 (18.9)	14 (13.9)	573 (10.0)	2427 (17.3)
	60세 이상	1564 (19.6)	13 (6.6)	22 (21.8)	2483 (30.6)	4082 (29.1)
	계	7970 (100.0)	196 (100.0)	101 (100.0)	5745 (100.0)	14012 (100.0)
학 력 별	중졸이하	1635 (20.5)	18 (9.2)	21 (20.8)	2173 (37.8)	3847 (27.5)
	고졸	2690 (33.8)	65 (33.2)	31 (30.7)	1821 (31.7)	4607 (32.9)
	전문대졸	1282 (16.1)	50 (25.5)	13 (12.9)	544 (9.5)	1889 (13.5)
	대졸	1980 (24.8)	57 (29.1)	34 (33.7)	1129 (19.7)	3200 (22.8)
	대학원이상	382 (4.8)	6 (3.1)	2 (2.0)	78 (1.4)	468 (3.3)
	계	7969 (100.0)	196 (100.0)	101 (100.0)	5745 (100.0)	14011 (100.0)
부 모 생 존	예	5548 (69.8)	158 (80.6)	74 (73.3)	3106 (54.1)	8886 (63.5)
	아니오	2401 (30.2)	38 (19.4)	27 (26.7)	2640 (45.9)	5106 (36.5)
	계	7949 (100.0)	196 (100.0)	101 (100.0)	5746 (100.0)	13992 (100.0)
사 회 경 제 적 지 위	상-상	13 (.2)	0 (.0)	0 (.0)	10 (.2)	23 (.2)
	상-하	95 (1.2)	1 (.5)	0 (.0)	72 (1.3)	168 (1.2)
	중-상	1239 (15.6)	16 (8.2)	8 (8.0)	919 (16.1)	2182 (15.6)
	중-하	4148 (52.3)	96 (49.0)	48 (48.0)	2607 (45.6)	6899 (49.5)
	하-상	2026 (25.5)	68 (34.7)	33 (33.0)	1520 (26.6)	3647 (26.2)
	하-하	409 (5.2)	15 (7.7)	11 (11.0)	589 (10.3)	1024 (7.3)
	계	7930 (100.0)	196 (100.0)	100 (100.0)	5717 (100.0)	14011 (100.0)
지 위 상 승 가 능 성	매우 그렇다	132 (1.7)	2 (1.0)	2 (2.0)	132 (2.3)	268 (1.9)
	대체로	4370 (55.1)	95 (48.5)	44 (44.0)	3350 (58.7)	7859 (56.4)
	별로	2802 (35.3)	85 (43.4)	38 (38.0)	1707 (29.9)	4632 (33.2)
	전혀	557 (7.0)	12 (6.1)	14 (14.0)	344 (6.0)	927 (6.7)
	모르겠다	71 (.9)	2 (1.0)	2 (2.0)	177 (3.1)	252 (1.8)
	계	7932 (100.0)	196 (100.0)	100 (100.0)	5710 (100.0)	13938 (100.0)

<표 3> 미취업자 유형에 따른 최근 직업훈련, 자격증 최근 취득, 좋은 일자리 기준 분포

		취업자	미취업자			계
			구직활동자	구직희망자	구직관망자	
직업훈련	받아본 경험있다	542 (6.8)	4 (2.0)	3 (3.0)	20 (.3)	569 (4.1)
	현재 받고 있다	17 (.2)	1 (.8)	1 (1.0)	15 (.3)	34 (.2)
	받아본적이 없다	7392 (93.0)	191 (97.4)	97 (96.0)	5711 (99.4)	13391 (95.7)
	계	7951 (100.0)	196 (100.0)	101 (100.0)	5745 (100.0)	14011 (100.0)
자격증	있다	62 (.8)	5 (2.0)	3 (3.0)	31 (.5)	101 (.7)
	없다	7889 (99.2)	191 (97.4)	98 (97.0)	5715 (99.5)	13893 (99.3)
	계	7951 (100.0)	196 (100.0)	101 (100.0)	5746 (100.0)	14011 (100.0)
좋은일자리기준	안정적임	4211 (53.1)	96 (49.0)	47 (47.0)	2749 (48.3)	7103 (51.0)
	사회적 인정받음	664 (8.4)	3 (1.5)	5 (5.0)	577 (10.1)	1249 (9.0)
	장래 발전가능성	838 (10.6)	45 (23.0)	13 (13.0)	897 (15.8)	1793 (12.9)
	자신의적성,취향	1223 (15.4)	34 (17.3)	23 (23.0)	894 (15.7)	2174 (15.6)
	임금 또는 수입	853 (10.7)	17 (8.7)	11 (11.0)	485 (8.5)	1366 (9.8)
	자율성이 보장	146 (1.8)	1 (.5)	1 (1.0)	87 (1.5)	235 (1.7)
	계	7935 (100.0)	196 (100.0)	101(100.0)	5689(100.0)	13920 (100.0)

<표 4> 미취업자 유형에 따른 건강상태의 평균차이 분석

	유형	평균	표준편차	df	F	p	다중비교
현재 건강상태	취업자	2.43	.65	3 13985	171.2	.000	2 < 1 < 3, 4
	구직활동자	2.26	.72				
	구직희망	2.64	.84				
	구직관망자	2.74	.97				
	계	2.56	.82				
1년전대비 건강상태	취업자	3.00	.34	3 13986	160.9	.000	1, 2 < 3, 4
	구직활동자	3.01	.28				
	구직희망	3.10	.50				
	구직관망자	3.16	.52				
	계	3.07	.43				
보통사람 대비 건강상태	취업자	2.57	.64	3 13987	144.6	.000	2, 1 < 3, 4
	구직활동자	2.47	.67				
	구직희망	2.78	.83				
	구직관망자	2.84	.87				
	계	2.68	.75				

1: 취업자, 2: 구직활동자, 3: 구직희망자, 4: 구직관망자

2. 미취업자여부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미취업자의 유형의 결정요소가 무엇인지를 탐색하여 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두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첫 단계는 미취업자와 취업자를 결정짓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탐색한다. 다음 단계는 첫 단계에서 도출된 독립변수들로 제한하고 이 중에서 미취업자의 유형(구직활동자, 구직희망자, 구직관망자)을 선택하는 데 유효한 변수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분석방법으로 보면, 첫 단계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다음 단계는 다항 회귀분석을 이용하면 된다.

첫 단계에서 사용할 독립변수로는 우선 성별, 연령대, 학력, 부 또는 모의 생존여부,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경제적지위의 상승가능성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고려하였으며, 다음으로 최근 직업훈련경험의 유무, 자격증의 최근 취득 유무,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준 등과 같은 직업관련 변수들을 고려하였고, 마지막으로 현재의 건강상태, 1년 전과 비교한 건강상태, 보통사람과 비교할 때 건강상태 등의 신체건강관련 변수들을 고려하였다. 이들을 이용하여 미취업자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탐색하기 위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최근 자격증의 취득 유무, 보통사람과 비교할 때 건강상태는 비유의적인 변수로 판명이 되어 모형에서 제거하였다. 이의 의미는 미취업자나 아니면 취업자냐를 결정하는 데, 최근 직업훈련의 경험유무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격증의 취득여부는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안국(2003)의 청년층에 대한 연구결과와는 정반대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심층분석과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통 사람과 비교한 건강상태는 1년전과 비교한 건강상태와 유사한 응답패턴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며, 다중공선성 등의 이유로 비유의적인 변수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두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인 경우 미취업자일 확률이 낮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15~19세인 경우 미취업자일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을 살펴보면 특히 고졸, 중학교 이하, 대졸의 순으로 미취업자일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대졸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부 또는 모의 생존할 경우, 미취업자일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지위를 살펴보면, 중-하, 하-상 등의 경우 미취업자일 확률이 낮게 나타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층의 부모가 자녀의 미취업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력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지위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라면, 미취업자일 확률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 미취업자일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일자리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면, 장래 발전 가능성 있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생각하는 경우 미취업자일 확률이 가장 높으며, 자신의 적성이나 취향에 맞는 일자리, 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생각한다면, 역시 미취업자일 확률이 높다. 현재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미취업자일 확률이 높으며, 1년전과 비교하여 건강상태가 나빠져도 미취업자일 확률이 높다.

<표 4> 미취업자여부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B 추정값	표준 오차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남자	-1.226	0.042	845.5	1	0.000	0.294
연령대			1627.1	4	0.000	
15~29세	1.051	0.088	142.2	1	0.000	2.861
30~39세	-0.901	0.089	103.3	1	0.000	0.406
40~49세	-1.287	0.082	245.6	1	0.000	0.276
50~59세	-1.340	0.069	381.4	1	0.000	0.262
학력			75.0	4	0.000	
중학교이하	0.744	0.147	25.7	1	0.000	2.103
고졸	0.928	0.140	44.2	1	0.000	2.529
전문대졸	0.486	0.146	11.0	1	0.001	1.626
대졸	0.736	0.140	27.5	1	0.000	2.087
부,모 생존	-0.157	0.062	6.4	1	0.011	0.855
사회경제적지위			41.9	5	0.000	
상-상	0.206	0.505	0.2	1	0.684	1.228
상-하	0.043	0.204	0.0	1	0.834	1.044
중-상	-0.028	0.098	0.1	1	0.776	0.972
중-하	-0.313	0.086	13.2	1	0.000	0.731
하-상	-0.337	0.087	15.0	1	0.000	0.714
사회경제적지위상승가능성			31.5	4	0.000	
매우그렇다	-0.426	0.218	3.8	1	0.051	0.653
대체로 그렇다	-0.528	0.166	10.1	1	0.001	0.590
모르겠다	-0.682	0.167	16.8	1	0.000	0.506
별로 그렇지 않다	-0.777	0.180	18.7	1	0.000	0.460
직업훈련경험유	-2.111	0.170	154.2	1	0.000	0.121
좋은 일자리 기준			110.7	5	0.000	
안정적인 일자리	0.171	0.159	1.2	1	0.281	1.186
사회적 인정받는	0.412	0.169	5.9	1	0.015	1.510
장래 발전가능성	0.749	0.165	20.5	1	0.000	2.114
자신의적성, 취향	0.339	0.164	4.3	1	0.039	1.403
임금 또는 수입	-0.002	0.169	0.0	1	0.993	0.998
현재 건강상태	0.288	0.033	77.8	1	0.000	1.334
1년전 비교 건강상태	0.506	0.057	78.4	1	0.000	1.659
상수	-1.623	0.330	24.2	1	0.000	0.197

N= 14013

모형계수전체 테스트: 카이제곱=4145.730, 자유도=27, 유의확률=.000

모형요약: -2Log 우도= 14858.861, Cox와 Snell의 R-제곱=.258,

Nagelkerke R-제곱=.346

Hosmer와Lemeshow 검정: 카이제곱=216.752, 자유도=8, 유의확률=.000

3. 미취업자 유형(구직활동자, 구직희망자, 구직관망자)의 선택에 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미취업자의 유형이며, 구체적으로는 미취업자가 구직활동자, 구직희망자, 구직관망자 중에서 어느 집단에 해당되는가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독립변수로서 우선 성별, 연령대별, 학력별, 부모생존여부, 사회경제적지위, 사회경제적지위상승가능성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고려하였으며, 다음으로 최근 직업훈련여부,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준 등과 같은 직업관련 변수들을 고려하였고, 마지막으로 현재의 건강상태, 1년 전과의 비교한 건강상태 등의 신체건강관련 변수들을 고려하였다. 이들은 전 단계에서 미취업자여부를 결정짓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다. 이들을 이용하여 세 가지 미취업자의 유형 중 어느 유형을 선택하게 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본 연구의 과제이다.

미취업자의 세 가지 유형을 결정짓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요약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참조범주는 구직관망자로 놓았으므로 구직활동자와 구직희망자에 대한 계수만 제시하였고, 각 범주변수의 마지막 범주에 대하여 계수를 0으로 놓았으므로 이를 삭제한 결과를 표에서 제시하였다.

모형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성별, 연령대, 학력, 사회경제적 지위, 개인적인 노력에 의한 사회경제적지위의 상승가능성, 직업훈련경험유무, 좋은 일자리의 선택기준, 현재건강상태 등이었다.

구직활동자일 확률은 성별에서 남자의 경우, 연령대에서 전 연령대에서 특히 40대와 50대의 경우 높아지는 반면, 학력에서 중졸 이하나 고졸일 경우, 그리고 소득수준이 중-상일 경우 구직활동자일 확률이 낮아진다. 이는 남자가, 그리고 40대 및 50대가 구직활동을 활발하게 행하며, 고졸 내지 중졸이하이거나 소득수준이 중간보다 높으면 구직을 할 필요가 적어지거나 소극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직활동자일 확률에 직업훈련 경험이나, 개인적인 노력에 의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가능성, 또는 좋은 일자리 기준들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심층분석을 요하는 문제로 생각된다.

구직희망자일 확률은 성별에서 남자의 경우, 연령대에서 특히 30대, 50대, 40대의 순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훈련 경험이 구직희망자일 확률을 높이는 데 유의적인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훈련을 마친 자에게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또는 정책적 배려가 요청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만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직업훈련을 마친 자들이 구직활동을 벌일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표 5> 구직활동자, 구직희망자, 구직관망자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직활동자				구직희망자			
	B 추정값	표준 오차	자유도	유의 확률	B 추정값	표준 오차	자유도	유의 확률
상수	-4.533	1.436	1	0.002	-5.291	1.583	1	0.001
현재 건강상태	-0.471	0.120	1	0.000	-0.052	0.141	1	0.714
남자	1.116	0.170	1	0.000	1.128	0.225	1	0.000
15~29세	1.233	0.348	1	0.000	0.300	0.370	1	0.418
30~39세	1.755	0.377	1	0.000	0.776	0.432	1	0.072
40~49세	2.037	0.366	1	0.000	1.621	0.360	1	0.000
50~59세	2.260	0.344	1	0.000	0.938	0.369	1	0.011
중학교이하	-1.691	0.520	1	0.001	-0.713	0.791	1	0.367
고졸	-1.189	0.462	1	0.010	-0.698	0.759	1	0.357
전문대졸	-0.345	0.468	1	0.461	-0.284	0.787	1	0.719
대졸	-0.858	0.463	1	0.064	-0.021	0.754	1	0.978
상-상	-17.690	0.000	1	.	-17.233	0.000	1	.
상-하	-1.305	1.064	1	0.220	-19.724	0.000	1	.
중-상	-1.203	0.395	1	0.002	-0.850	0.517	1	0.100
중-하	-0.420	0.312	1	0.179	-0.077	0.387	1	0.843
하-상	0.039	0.311	1	0.899	0.132	0.374	1	0.724
매우그렇다	-0.195	1.028	1	0.849	0.350	1.026	1	0.733
대체로 그렇다	0.420	0.738	1	0.569	0.014	0.750	1	0.985
모르겠다	0.905	0.737	1	0.219	0.379	0.747	1	0.612
별로 그렇지 않다	0.588	0.786	1	0.454	0.995	0.775	1	0.199
직업훈련경험유	0.818	0.503	1	0.104	1.447	0.565	1	0.010
안정적인 일자리	1.468	1.022	1	0.151	0.711	1.030	1	0.490
사회적 인정받는	-0.641	1.171	1	0.584	-0.045	1.114	1	0.968
장래 발전가능성	1.452	1.028	1	0.158	0.354	1.058	1	0.738
자신의적성, 취향	1.199	1.032	1	0.245	0.962	1.043	1	0.356
임금 또는 수입	1.393	1.048	1	0.184	0.935	1.065	1	0.380

N= 5980

모형 적합정보: -2Log우도=1806.535, 카이제곱=392.973, 자유도 = 56, 유의확률 = .000

적합도: Pearson 카이제곱=5798.232, 자유도=4584, 유의확률= .000

편차 카이제곱=1544.806, 자유도=4584, 유의확률=1.000

pseudo-R제곱: Cox와 Snell = .064, Nagelkerke=.173, McFadden=.144

4. 미취업자(구직활동자, 구직희망자, 구직관망자)의 평소활동과 생활만족도

앞에서 미취업자를 결정짓는 변인은 무엇이며, 나아가 미취업자 중에서 구직활동자, 구직희망자를 결정짓는 변인은 무엇인가를 분석하여 보았다. 여기서는 취업자, 미취업자(구직활동자, 구직희망자, 구직관망자)가 주로 평소에 행하는 활동은 무엇이며,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표 6>는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세가지 유형에 따라 평소에 주로하는 활동에 대하여 소득활동여부, 세부적인 소득활동·비소득활동, 지난주 활동 등에 대한 분할표이다. 미취업자는 대부분(96.4%) 비소득활동을 하고, 취업자는 대부분(98.9%)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자는 대부분 가사를 돌보고 있거나(33.8%) 아무 일을 안고(32.9%) 있으며, 이 두 가지 활동에 구직활동자는 65.8%, 구직희망자는 80.2%, 구직관망자는 70.8%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취업자는 95.0%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의 활동을 보면, 구직활동자는 51.0%가 구직활동을 하거나(35.7%) 취업준비를 하였으며(15.3%), 구직희망자는 20.8%가 구직활동을 하거나(6.9%) 취업준비를 하였으며(13.9%), 구직희망자는 2.8%가 그러한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은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세 가지 유형에 따라 생활만족도 6가지와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다중비교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한 표이다.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전체적으로 2.99로 보통 수준이며, 취업자와 구직관망자의 경우 각각 2.96, 3.01로서 보통 수준이나, 구직활동자와 구직희망자는 각각 3.34와 3.27로 보통 보다 불만족의 경향이 있다.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2.81로 만족하는 경향을 보이며, 취업자나 구직관망자는 각각 2.83과 2.76으로 만족하는 편이나 구직활동자와 구직희망자는 각각 3.01과 3.02로 보통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52로 만족하는 편이며, 취업자와 구직관망자는 각각 2.52와 2.53으로 좀 더 만족하는 편이지만 구직활동자와 구직희망자는 각각 2.66과 2.72로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2.38로 만족하는 편이며, 취업자와 구직관망자가 각각 2.35와 2.42로 만족하는 편이나 구직활동자는 2.47로 이보다 낮고, 구직희망자로 2.58로 가장 낮다. 친인척 관계나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2.55, 2.53으로 보통과 만족의 중간수준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도 2.58로 취업자, 구직관망자, 구직활동자, 구직희망자의 각각 2.55, 2.62, 2.76, 2.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 수준에서 보통보다 낮은 경우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통이거나 이보다 약간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6> 미취업자 유형에 따른 평소활동, 평소세부활동, 지난1주간활동의 분포

		취업자	미취업자			계
			구직활동자	구직희망자	구직관망자	
평 소 활 동	소득활동	7899 (98.9)	4 (2.0)	7 (7.0)	205 (3.6)	8115 (57.9)
	비소득활동	71 (.9)	192 (98.0)	94 (93.0)	5541 (96.4)	5898 (42.1)
	계	7970 (100.0)	196 (100.0)	101 (100.0)	5746 (100.0)	14013 (100.0)
소 득 활 동	주로 일함	7571 (95.0)	0 (0.0)	4 (4.0)	34 (.6)	7609 (54.3)
	가사& 일함	295 (3.7)	2 (1.0)	1 (1.0)	30 (.5)	328 (2.3)
	통학& 일함	22 (.3)	1 (.5)	1 (1.0)	92 (1.6)	116 (.8)
	기타& 일함	11 (.1)	1 (.5)	1 (1.0)	49 (.9)	62 (.4)
비 소 득 활 동	가사만	19 (.2)	42 (21.4)	27 (26.7)	2264 (39.4)	2352 (16.8)
	아이돌봄만	26 (.3)	5 (2.6)	5 (5.0)	303 (5.3)	339 (2.4)
	통학만	5 (.1)	10 (5.1)	5 (5.0)	1141 (19.9)	1161 (8.3)
	아무일않음	20 (.3)	129 (65.8)	54 (53.5)	1805 (31.4)	2008 (14.3)
	기타	1 (.0)	6 (3.1)	3 (3.0)	28 (.5)	38 (.3)
	계	7970 (100.0)	196 (100.0)	101 (100.0)	5746 (100.0)	14013 (100.0)
	지 난 주 활 동	일/일시휴직	7849 (98.5)	0 (0.0)	0 (.0)	12 (.2)
구직		0 (.0)	70 (35.7)	7 (6.9)	11 (.2)	88 (.6)
가사/육아		59 (.7)	42 (21.4)	34 (33.7)	2712 (47.2)	2847 (20.3)
학교/학원		19 (.2)	8 (4.1)	3 (3.0)	1199 (20.9)	1229 (8.8)
연로/장애		5 (.1)	1 (.5)	5 (5.0)	770 (13.4)	781 (5.6)
준비(취업)		1 (.0)	30 (15.3)	14 (13.9)	152 (2.6)	197 (1.4)
휴식		37 (.5)	45 (23.0)	38 (37.6)	884 (15.4)	1004 (7.2)
기타		0 (.0)	0 (.0)	0 (.0)	6 (.1)	6 (.0)
계		7970 (100.0)	196 (100.0)	101 (100.0)	5746 (100.0)	14013 (100.0)

<표 7> 미취업자 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평균차이분석

	유형	평균	표준편차	df	F	p	다중비교
가족의 수입	취업자	2.96	.68	3 13936	27.9	.000	1, 4 < 3, 2
	구직활동자	3.34	.61				
	구직희망자	3.27	.75				
	구직관망자	3.01	.71				
	계	2.99	.70				
여가활동	취업자	2.83	.66	3 13937	22.5	.000	4, 1 < 2, 3
	구직활동자	3.01	.62				
	구직희망자	3.02	.70				
	구직관망자	2.76	.68				
	계	2.81	.67				
주거환경	취업자	2.52	.63	3 13938	6.4	.000	1, 4 < 2, 3
	구직활동자	2.66	.68				
	구직희망자	2.72	.60				
	구직관망자	2.53	.65				
	계	2.52	.64				
가족관계	취업자	2.35	.57	3 13937	22.3	.000	1, 4 < 2 < 3
	구직활동자	2.47	.63				
	구직희망자	2.58	.61				
	구직관망자	2.42	.62				
	계	2.38	.59				
친인척 관계	취업자	2.52	.57	3 13938	16.8	.000	1, 4, 2 < 3
	구직활동자	2.60	.63				
	구직희망자	2.70	.58				
	구직관망자	2.58	.60				
	계	2.55	.58				
사회적 친분관계	취업자	2.49	.56	3 13936	24.6	.000	1, 4, 2 < 3
	구직활동자	2.57	.58				
	구직희망 비활동/비희망	2.77	.63				
	비활동/비희망	2.57	.60				
	계	2.53	.58				
전반적 생활	취업자	2.55	.55	3 13944	30.7	.000	1, 4 < 2 < 3
	구직활동자	2.76	.56				
	구직희망자	2.88	.56				
	구직관망자	2.62	.61				
	계	2.58	.58				

IV. 결론

일자리에 대하여 기업이 공급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노동자는 일자리의 수요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15세 이상의 인구는 생산가능인구이며, 그 중에서 일자리를 구한 자는 취업자이며, 그렇지 못한 자는 미취업자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취업자를 결정짓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다음에 이들을 이용하여 미취업자를 구직활동자, 구직희망자, 구직관망자로 구분한 후, 이들을 결정짓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미취업자를 결정짓는 변인으로 성별, 연령대, 학력, 부 또는 모의 생존, 사회경제적 지위, 노력에 의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 가능성, 직업훈련경험유무, 좋은 일자리의 기준, 현재의 건강상태의 정도, 1년 전과 비교한 건강상태의 정도 등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기초로 미취업자의 세 가지의 유형, 즉 구직활동자, 구직희망자, 구직관망자를 결정짓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탐색하여 본 결과, 부 또는 모의 생존이나 1년전과 비교한 건강상태와 같은 변수는 미취업자의 세 가지의 유형을 결정짓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제외시켰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본 결과 구직활동자와 구직희망자를 선택하는 데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가능성이나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준은 모형의 계수가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미취업자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대한 기대가 곤란한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일 수 있다고 생각되며,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준은 미취업자에게는 거리가 먼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취업자를 결정짓는 변수로 성별, 연령대, 학력, 부 또는 모의 생존,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가능성과 같은 인구통계적 변수들이 있으며, 직업훈련경험과 좋은 일자리기준과 같은 직업관련 변수, 그리고 공변량으로 현재의 건강상태, 1년 전과 비교한 건강상태 등임을 알아냈다.

둘째, 미취업자 중 구직활동자, 구직희망자, 구직관망자를 결정짓는 변수로 성별, 연령대, 학력,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가능성과 같은 인구통계적 변수들이 있으며, 직업훈련경험과 좋은 일자리기준과 같은 직업관련 변수, 그리고 공변량으로 현재의 건강상태로 나타났다.

셋째, 생활만족도를 살펴볼 때, 미취업자 중 구직활동자, 구직희망자, 구직관망자의 순서대로 만족도 수준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우선 18차년도 자료만을 이용한 결과라는 점이며, 앞으로 패널자료를 이용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미취업자의 유형을 결정짓는 로지스틱 모형의 설명력을 제고할 수 있는 독립변수를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미취업자의 유형을 다양하게 정의함으로써 미취업자에 대한 분석을 정교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순희, 어수봉, 최기성 (2015). 미취업자의 직업훈련 참가 결정요인과 고용성과분석, HRD연구, 제17권 제2호, pp. 267-298.
- 김안국 (2003). 청년층 미취업의 실태 및 원인분석, 노동경제논집, 제26권 제1호, pp. 23-52.
- 김안국 (2009). 청년층 미취업자 특성에 관한 분석, -미취업결정요인 및 낙인효과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제15권 제 2호, pp. 99-123.
- 김은주 · 이기중 (2009). 고등교육 종료 후 교육지속성을 결정하는 배경요인 탐색, 제 10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pp. 195-210.
- 김호진 (2006). 국내 패널조사 현황, 한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자료 2006-02, pp. 15-21.
- 남기곤 (2009). 청년층 미취업자 특성에 관한 분석: -미취업결정요인과 낙인효과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제15권 제2호, pp. 99-123.
- 성재민 (2012). 최근 미취업자 변동에 대한 분석, 월간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pp. 50-63.
- 윤여인 (2007). 우리나라의 패널조사 현황과 과제, 직업과 인력개발, THE HRD REVIEW, 제10권 제2호, pp. 74-81.
- 이상호 (2005). 교육훈련 기회와 노동시장 성과, 월간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pp. 61-74.
- 이성립 (2004). 미취업 여성의 미취업 원인에 대한 연구: 의중임금과 시장임금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제27권 제1호, pp. 135-164.
- 전봉걸, 조범준 (2014). 취업자 특성에 대한 공급측면에서의 분석, 시장경제연구, 제43집 제2호, pp. 67-99.
- 조경은, 강도명 (2012). 지적장애 취업자와 미취업자 특성 관련 변인분석, 지적장애연구, 제14집 제1호, pp. 263-285.
- 주성수 (1998). 실직자 및 대졸 미취업자를 위한 대학의 프로그램 개발, 대학교육, pp. 20-27.